

최근 3년 광주·전남 마약류 사범 증가세

3년간 2만 7천 여명 적발...한해 평균 376명 꼴 SNS·포털사이트 통해 마약 손쉽게 접하고 있어

최근 3년사이 광주·전남에서 마약류 사범이 증가 추세를 보이며 한해 평균 376명 꼴로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전남에서 단

속된 마약류 사범은 1130명이었다. 최근 3년간 한해 평균 마약류 사범 376명 가량이 단속에 걸리는 셈이다. 광주에선 2017년 123명, 2018년 158명, 지난해 244명으로 해마다 마약류 사범이 늘고 있다. 전남 역시 2017년 224명을 시작으로 2018년엔 162명으로 줄었으나, 지

난해 다시 늘어 219명이 단속에 붙잡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광주 159명, 전남 233명이다. 특히 전남은 벌써 지난해 단속 사범을 뛰어넘었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3년간 2만7405명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경찰 단속에 걸렸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7836명이 검거돼 지난해 1만411명과 비슷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년간 마약류 사범 최다 적발 지역은 경기도(8958건)였다. 서울·부산이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해마다 마약류 사범이 크게 늘고 있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손쉽게 접하고 있고, 마약 구매를 빙자한 사기범죄도 성행하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를 미리 근절할 실질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인호기자



'악취 유발' 은행나무 열매 치우기

광주 북구청 공무원들이 6일 북구 임동 서림초등학교 일대에서 은행나무 열매를 털어 치우고 있다. 인도 증지에 떨어진 은행 열매는 악취와 교통 불편을 야기, 가을이면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화목보일러 화재원인 10건 중 7건 '부주의'

난방비 절약이나 높은 열효율 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목보일러 화재 10건 중 7건이 사용자 안전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여수지역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 20건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부주의의 14건(70%), 기계적 2건(10%), 전기적 2건(10%) 순으로 부주의가 화재 대부분을 차지했다.

월별로는 12월 6건(30%), 1월 5건(25%), 3월 3건(15%), 11월 2건(10%) 순이며, 장소별로는 단독주택이 13건(6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화목보일러는 연료보충과 타고 남은 재를 처리하는 등 사용·관리가 어려운 데다 불완전 점 때문에 방치하는 곳이 많은 뿐만 아니라 사용 시 안전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가까운 곳에 빨간을 비치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티가 많이 날리고, 온도조절 장치가 없어 과열로 발생하는 복사열이 주위에 있는 빨간으로 옮겨 화재 발생이 쉽다는 취약성이 있다.

따라서 화목보일러 취급 시 보일러 주변에 가연물 등을 보관해서는 안되며 연료 투입 후에는 꼭 투입구를 닫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연소실과 연통 내 재(찌꺼기)를 제거해 관리를 해야 한다.

화목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건축물 외벽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벽 또는 천장과 접촉 부분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의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부산경찰,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20대 전국 첫 구속

불법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20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6일 아동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소지한 2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수백 건을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PC와 휴대전화에 소지 및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불상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불법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5월 19일)이 시행된 이후 불법촬영물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국 첫 사례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은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A씨를 검거했다.

2016년 10월 개발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은 온라인상 아동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자를 추적하고, 피해 게시물을 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삭제·차단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부산경찰청은 24시간 가동되는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 지난 9월까지 유포자 30명을 형사입건하고, 현재 13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 촬영·유포물은 소지만 해도 엄하게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신안 해상서 선박 화재...부상 선원 등 13명 구조

전남 신안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선박 화재가 발생해 선원 13명이 모두 구조됐다.

6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4분께 신안군 흑산도 해상 북쪽 26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866급 선박 불이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박에는 선원 등 13명 승선해 있었으며 출동한 해경 경비정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

또 화재로 인해 선원 중 3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5명이 연기 등을 흡입해 헬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선박은 진화됐으며 자력 운항이 가능해 항구로 이동 중이다.

해경은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항공권 위조로 체류기간 연장 알선한 20대 중국인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 출국하지 못하는 국내 단기체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출국 항공권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알선한 20대 중국인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2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경남의 한 여행사에 근무하면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중국인 48명을 대상으로 화상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존에 발급된 출국 항공권의 탑승객 이름, 예약일자, 탑승일자 등을 위조한 뒤 이를 인터넷 전자민원 등을 통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국 항공권을 마련하지 못한 중국인들로부터 건당 5만~6만원의 대가금을 받고 총 52건의 출국 항공권을 위조해 체류기간을 연장해 줬다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설명했다.

압수수색 당시 A씨가 직접 위조 항공권을 제작·시연하는데 2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위조 항공권은 진짜 항공권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다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전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A씨는 출입국·외국인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 전자민원 신청제도를 악용했다"면서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교습비 초과 징수 등 광주·전남 학원 111건 적발

시도별 학원 지도·점검 결과...광주 48건·전남 63건

광주와 전남에서 지난 3년간 교습비 관련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이 1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밝힌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도별 학원 등 지도·점검 현황에 따

면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비 미반환 등 교습비 관련 위반으로 적발된 학원은 광주 48건·전남 63건 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적발된 건수는 총 4951건이다.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다.

올해는 동일한 단속인력이 코로나19로 인한 대형 기숙학원의 집합금지 이행 여부 등을 단속하고 있어, 교습비 초과 징수 단속은 여전히 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